

2017년 12월 20일, 대정읍 신도1리 신도1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김태병(여, 1934년생, 대정읍 신도1리)

제보자2: 허공선(여, 1935년생, 대정읍 신도1리)

- 줄거리: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는데, 콩쥐는 첫째 부인의 딸이고 팥쥐는 계모가 데려온 딸이었다. 계모는 콩쥐를 심하게 구박을 하였다. 하루는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자 계모는 콩쥐에게 밀동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, 벼 닛 말을 간 뒤에 잔칫집에 오라고 한다. 콩쥐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해도 물이 차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항아리의 밀동이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. 벼 닛 말을 언제 다 깔지 한탄을 하던 콩쥐 앞에 새들이 나타나서 벼를 모두 골라내어 준다. 잔칫집에 도착한 콩쥐를 보고 놀란 계모가 시킨 일을 다 하였냐고 묻자, 항아리는 밀동이 깨져서 애초부터 물은 채울 수 없었고 쌀은 모두 갔다고 대답했다. 마침 사또가 신발을 내놓으면서 신발이 발에 맞은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다. 계모와 팥쥐가 신발을 신으려 노력하였지만 맞지 않았고 콩쥐가 신으니 꼭 맞았다. 그 후 콩쥐는 사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고 계모와 팥쥐는 아무 호사도 누릴 수 없었다.

[조사자] 콩데기 풋데기 얘기는 어떻 험디가?

[제보자2] 다슴얘기는 콩죽만 썰 멕이곡 자기 난 풀은 풋이 막 맛이 잇지. 맛있이난 그것만 써 주곡. 헨 보난 그것이.

[제보자1] 반대로 뒤텔지게.

[제보자2] 반대로 뒤텔지, 콩 멕인 아덜은 막 곱고 막 미남이 뒤텔. 풋만 먹은 건 빈덩이가 퍼싹퍼싹 벗어정 뒤텔지고.

[조사자] 경 헛덴 험디가?

[제보자2] 응.

[제보자1] 게난 그 콩쥐팥쥐난, 콩쥐는 큰딸이고 팥쥐는 이녀 난 작은딸이난. 풋만 막 멕이난 빈덩이 막 굿곡 헤여도. 막 다심어명이니까 다심태 헤연 그 콩쥐를 경 굿인 체 헤연. 이제 어디 잔칫집인가 어딘가 잇이난.

“넬랑 항에 물을 7득여뒤그네 우리 뒤에 오민 우린 먼저 가 시켄.”

헤연 팥쥐딸이영 잔치 먹으레 가 부난. 콩쥐는 물을 지어당 비와 봐도 항은 아이 7득고. 기영 허거든. 이젠 누계가

“굽언 보라. 굽언 보라.”

헨 굽언 보난 굽으로 터진 향이난, 못 허게게. 그 지장눌은
 “이 지장 이제 닛 말 다 까그네. 쓸로 해된 오렌.”
 허난 그걸 어떻 까렌 허난, 그 죽어분 어멍 혼정이 잇인고라. 새덜이 오라 그
 자 막 멍석?튼 디 앓이민
 “아이고, 이 새덜 이거 문딱 먹어불민 나 다심어멍신디 죽넨.”
 막 헨 파르릉 허게 놀민 첸 프르링 놀아 불곡. 그 새는 또시 돌아오곡.

[제보자2] 옛날은 그 계모가 그렇게 나쁜.

[제보자1] 계모가 경 나쁜. 경 허난 이젠 그 콩쥐는 물항은 못 ?득이고 쓸은 지장은 다
 깐 새덜이 다 까주난 다 깃거든. 다 깐 이젠 어딘가 이젠 어멍네 간 딜 좇앙 깃
 이난 이젠 어멍넨, 어멍은
 “어떻 헨 이걸 깉아 오랏인고.”
 허난
 “물은 어떻 헨 ?득이고 쓸은 어떻 헨 깃이넨.”
 허난 이제
 “물은 질어다 놓단 보난 굽으로 향이 터져 불언 못 허고 쓸은 다 깐 오랏우젠.”
 허난 그 어디서 어디 사또가 어떤 사름이 이젠 신을 이젠 저 내여 노멍
 “이 신에 발에 맞은 사름이 이제 뵈 허켄.”
 허난 그 어멍은
 “나 발에 맞았직젠.”
 신으난 꼬딱 아이 맞아. 쫓데기도 신으난 꼬딱 안 혀. 콩쥐 신으난 그 신을
 꼭 맞으니까. 그 사또가 이젠
 “이 신발에 맞은 사름을 나가 데려가켄.”
 헨 경 헨 콩쥐는 그 사름이영 간 잘살곡. 쫓쥐허고 다심어멍은 아무 것도 안
 뵈엿지.

- 핵심어: 콩데기, 쫓데기, 다슴애기(의붓자식), 다심어멍(의붓어머니), 다심태(차별), 잔칫집, 향(항아리), 지장눌(기장가리), 새, 사또, 신발, 계모